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미컬로프: 형제들

디아블로 III: 호라드림 결사단 프리퀄

스캇 브릭

'고통이여, 환영한다. 부디 내 집에서 편히 지내거라. 여기 오래 있지는 못하겠지만 나와 함께 있을 때, 난 너를 귀빈처럼 대할 것이다. 또한 이 집에선 평화를 알게 될 것이나, 그건 내가 임무를 끝내는 순간까지다. 때가 오면 넌 떠나야 한다. 그 때가 오기 전까진, 내 너를 오랜 친구처럼 반기리라.'

땀이 젖은 수련생의 안면을 가로지른다. 창처럼 튀어나온 바위의 돌출부가 무릎을 파고든다. 단단한 바위 위에 무릎을 꿇은 수련생은 고통을 떨쳐내기 위해 중얼대고 있었다. 거센 고통이 온 세상을 감싸고, 공기로부터 고통을 빨아들여 무릎 위로 퍼뜨리는 것만 같다. 하지만 그는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다. 불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어쩌면 그의 임무 완수를 막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거친 표면 위에서 몇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있다 보니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시험을 통과하기는커녕 자신이 시험 중이라는 사실조차 잊을 것 같다. 만약 감각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아 더는 버틸 수 없다면, 감각에 대한 관념을 바꿀 수밖에 없다. 고통을 포용하는 수밖에 없다.

'난 이미 실패했을 거야.' 수련생은 질책했다. '만약 사부님들이 내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면...' 이브고로드 수도사들은 정신적인 압박을 받을 때 정신으로써 육신을 이기고 자신의 몸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사부님들이라면 머리를 비워야 한다고 알려줄 것이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들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해서

그러라고 할 것이다. 신들은 바람, 비, 강, 동식물을 통해 경청하는 자들에게 말을 건넸다.

이타르의 경우엔, 심지어 불조차도 그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지금껏 이 드넓고 어두운 방에서 미쿨로프의 귀에 들리는 것은 무릎에 고통이 느껴질 때마다 귀를 울리는 맥박 소리뿐이었다. 이 두 감각과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은 그의 몸과 정신이 아직 완벽한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증거였다. 미쿨로프는 다시금 애써 마음을 가라앉혔다.

'고통이여, 환영한다...'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그는 자신이 극복하지 못할까 두려워했다. 그 누가 이런 고통을 반길 수 있을까? 감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자이리라. 하지만 이 방에 발을 들이고 이곳에 출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부터가 미쿨로프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하늘 수도원. 성역 대륙 서쪽에 위치한 전설적인 이브고로드 수도사들의 고향. 고르고라 숲 가장자리 외딴 산지에 자리잡은 이곳에서, 아이들은 끝없는 외로움 속에 자랐다. 수도원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들은 모두 가족에 목말라 있었다. 이 갈망이 그들을 결속시켰고, 더욱 수도원의 방식을 존중케 하였다. 하나의 욕망, 바로

교단의 수도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 하지만 이들 중 수련할 자질이 부족한 자는 수도원을 떠날 것을 통보 받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 육체의 을 이겨내고 과거에 보여주지 못한 재능을 증명하여 수도원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영영 수도원을 떠나야 했던 것이다.

수년 간 미쿨로프를 괴롭히던, 몇 살 더 먹은 가체프라는 소년이 있었다. 옹고집에 수도원의 규율을 무시하던 그의 행동거지는 수도사들의 분노를 샀고, 결국 그는 시험에 들게 되었다. 잔인하게도 추웠던 그날, 가체프는 시험을 명받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을 리 만무했다. 공포에 휩싸인 소년의 절망 어린 표정을 보고 미쿨로프는 가체프가 돌아올 거라는 기대를 버렸다. 그리고 이후로 그 누구도 가체프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처음 가체프가 사라졌음에 미쿨로프는 기뻐했으나, 그 기쁨도 잠시, 곧 자신도 권위에 도전하고 있었기에 그와 흡사한 시험에 들게 될 공산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도원의 거대한 문을 통해 가체프의 형체가 황량한 저편으로 사라졌을 때, 미쿨로프는 베데닌 사부의 주름 잡힌 얼굴을 바라보았다. 수도사 특유의 고대 장포, 길고 흰 수염과 깨끗한 민머리 때문에 그는 다른 수도사들과 거의 분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베데닌을 다른 이들과 구분 지은 점은, 고요함으로 유명한 교단에서 유독 가혹하다는

점이었다. 그의 엄격함은 미쿨로프의 뇌리 깊은 곳까지 박혀 있었다. '멍청한 놈.' 베데닌은 꾸짖곤 했다. 그는 늘 억양 없는 목소리를 유지하면서도 한 단어 한 단어에 독기를, 음색에는 경멸을 담을 수 있었다. '넌 속도와 민첩함, 예리한 정신을 갖고 있지만, 아직 오만하고 충동적이며 약하다. 넌 실수와 실패에만 정신이 팔린 나머지 신들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구나. 네 행동은 너와 우리 수도원에 수치로서 남을 것이야.' 가체브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 그날도, 미쿨로프는 경멸스러운 시선의 베데닌으로부터 같은 말을 들어야 했다. 이 수도사는 분명 언젠가 나도 같은 운명이 되길 바랄 것이다. 직감인지 예감인지, 미쿨로프는 때가 되면 베데닌이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부터, 미쿨로프는 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내 아직 어리기에, 수도원에서의 남은 나날들을 앞날에 찾아올 시련에 대비하며 정진하리라.

수도사들은 모든 인간이 살아 숨쉬는 무기와 같으나, 한 가지 자원에만 의존하는 건 어리석으며, 진정한 힘은 극기와공력에서 나온다고 가르쳤다. 그러므로 교단의 수행자들은 세 영역의 무기를 연마해야만 했다. 바로 정신의 무기, 육체의 무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력의 무기였다. 신들은 영혼을 가다듬고 능력을 인정받은 시종들에겐 힘을 나눠주었는데, 수도사가 이를 달성하면 아무리 하찮은 무기에든 조화로운 공력을 실을 수 있었다. 미쿨로프는 이를 달성하기로 다짐했다.

막 걸을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 교단의 아이들은 육체의 무기와 함께 생활했다.

미쿨로프는 주먹을 쥐었을 때 날카롭게 돌출된 칼날이 손가락 사이로 튀어나오는 한 손 무기인 주먹 단검을 특히 선호했다. 그와 무기는 빠르게, 아니 거의 단숨에 서로에게 적응했다. 사실 처음에 미쿨로프는 베데닌의 강요에 반발했었다. 활을 쓰고 싶었기 때문이다.

"활은 원거리에서는 유용하지만, 근거리에선 효율성이 떨어진다." 늙은 수도사가 경멸 섞인 투로 말했다.

미쿨로프는 동의하지 않았다. 활을 쓰면 적과 거리를 유지하여 접근할 기회를 원천 봉쇄할 수 있을 테니까.

베데닌은 원거리 전투에 활보다 더 나은 무기가 많이라며 활을 나약한 자나 좋아하는 무기로 치부했다.

미쿨로프가 비웃자, 노인은 모든 아이들 앞에서 미쿨로프를 조롱할 기회를 잡았다. 그는 미쿨로프에게 활과 화살 두 개를 주고 열 보 떨어진 후, 장포의 넓은 소매 안에 손을

숨긴 채 팔짱을 끼고 섰다. "이 정도 거리에서 날 공격해야 한다면 뭘 쓰겠느냐?" 그가 물었다.

미쿨로프는 활을 들었다.

"짜 보거라."

동료 수련생들 앞에 선 미쿨로프는 늘 시비를 거는 듯했던 베데닌의 목소리가 어느덧 진정한 시험을 원하는 투로 변했음을 감지했다. 그는 첫 화살을 시위에 메기고 베데닌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베데닌이 한쪽 소매를 살짝 움직였을 뿐인데, 화살대는 미쿨로프의 손 안에서 똑 하고 부러졌다.

베데닌은 간격을 다섯 보로 줄였다. "이 간격에선 뭘 써서 날 공격하겠느냐?"

미쿨로프는 더듬거리며 나머지 화살을 찾았다.

"활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지." 베데닌이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공력은 즉각 쓸 수 있다." 그의 다음 몸짓은 너무나도 날렵하고 미세했기에 미쿨로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미쿨로프의 손에서 활과 화살이 폭발했다. 다른 수련생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미쿨로프의 귀는 불난 듯 새빨개졌다.

이제 노인과의 거리는 팔 하나만큼밖에 되지 않았다. 그가 거들먹거리며 물었다.

"이 거리에선 뭘 쓰겠느냐?"

미쿨로프는 으르렁대며 그를 노려보았다. "맨주먹입니다."

베데닌이 놀리는 손의 움직임은 마치 나이를 초월한 듯했다. 어느새 주먹 단검의 날카로운 칼날이 미쿨로프의 눈을 찌르기 직전까지 닿아 있었다. 미쿨로프의 눈에 칼날이 갈라낸 바람이 닿았다.

"씨봐." 베데닌이 부드럽게 중얼거리듯 말했다. 미쿨로프만 들을 수 있는 작은 소리였다.

미쿨로프는 이 가르침을 통해 굴욕감을 느꼈지만, 그 속에 담긴 교훈을 포착할 수 있었다. 알 수 없는 재능과 몸의 균형 덕에 그는 곧 이 근접 전투 무기와 가까워졌고, 수련장은 종종 그의 거친 호흡 소리로 메워지곤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는 주먹 단검의 달인이 되었다.

하지만 정신과 공력의 지배자는 되지 못했다.

진정한 기량은 단지 비전 두루마리에 쓰인 주문을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고대 교단은 만물에 신들의 기운이 깃들여 있다고 믿었다. 그것이 살아 있든 죽어 있든 창조된 만물에 그 기운이 흐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늘 수도원의 수행자들은 이브고로드 신들의 목소리인 장로의 뜻에 따라 만물에 깃든 그 기운을 감지하고 다루는 법을 배우며 살아갔다.

그날, 미쿨로프가 주먹 단검으로 적 대용이었던 나무 기둥을 치는 모습이 남들의 눈에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던 어느 날, 미쿨로프는 너무나 순수하게 집중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정신력을 발휘하여 신의 힘을 동적인 울림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비록 우연히 해낸 것이었고, 힘의 미세한 일부만을 담은 것이었지만, 그의 무기는 육체적 힘을 넘어선 힘을 싣고 기둥에 작렬했다. 미쿨로프의 검날이 치직거리며 푸른 불꽃을 튀겼고, 이때 생긴 충격파로 구경꾼들 몇 명이 넘어졌다. 잔물결의 파동이 퍼져 나가 수도원의 벽에 닿았다. 고아 두 명이 깜짝 놀라서는 주름이 쪼글쪼글한 자신의 사부들을 찾아 뛰었다. 하지만 괜한 일이었다. 신들이 보내는 신호를 기다리며 매일 명상에 빠져 있는 하늘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이렇게 확실한 신의 증거를 그들이 놓칠 리 없었다.

육체적 무기를 다루는 데 능수능란해진 미쿨로프는 이미 초자연적인 무언가를 충분히 해낼 만큼 정신과 공력을 갈고 닦은 상태였던 것이다. 그는 곧 자신이 시험에 들게 될 거란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근엄하고 단호한 얼굴의 베데닌이 직접 찾아와 수련장의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을 때, 미쿨로프는 그 가능성이 방금 확신으로 변했음을 알았다.

그 다음 날, 미쿨로프는 새롭게 발견한 이 능력에 통달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있었다.

힘은 그가 의도한 효과에 전적으로 집중했을 때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발산되었다.

그 첫 경험은 어설프고, 이상했으며, 너무나도 짧았다. 만약 이 힘이 만질 수 있는 것이었다면 손가락 사이로 놓쳐 떨어뜨리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미쿨로프는 이 경험을 통해 원할 때마다 힘을 끌어내어 발산할 수 있으며 심지어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미쿨로프는 자신만의 훈련법을 고안해냈고, 끊임없이 정진했다.

'검날 자체를 통해 힘을 방출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생각을 고정하자. 그 필요성에 집중하고 의지에 집중해야 한다. 정신에서 흘러나오는 힘을 방출시키고자 하는 갈망을 몸의 모든 근육과 마음에 전하자.'

좀 더 수련을 거듭한 결과, 미쿨로프는 제한적인 성공이나마 거두었고, 성공의 열쇠는 집중뿐이 아니라는 걸 배웠다.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절대 조급해해선 안 된다. 목적에 집중하되, 천천히 움직이자.'

미쿨로프는 신의 힘은 축복이므로 이들을 금세 써버리는 것은 헛되고도 무례한 일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려고 애썼다.

'신들께서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힘을 부여하신다. 내가 할 일은 단순하다.

신들께서 선택하신 그 순간에 집중하고 있는 것.'

수련생의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도원에서 가장 깊게 지켜져 온 비밀 중 하나였다. 시험에서 떨어진 자들은 즉시 쫓겨났으나, 합격한 자들은 수십 년 간 은둔 생활을 하며 열성적으로 수련에만 몰두하였고, 더는 호기심으로 가득한 어린 동료들과 만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강의 규칙에 대한 소문은 퍼져 있었다.

우선 한 가지 무기만을 선택할 수 있다. 미쿨로프의 경우 무기는 당연히 주먹 단검일 테니 별 고민거리가 아니었다. 이와 더불어 수련생들은 사부님이 두루마리에 쓴 한 개의 진언을 소지할 수 있었는데, 어떤 것이든 상관없었다. 아무리 고민해도 미쿨로프는 결정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매일 밤 답이 없는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 이리저리 머리를 굴렸다.

내 생존에 있어 무엇이 중요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그 선택은 사고가 아닌 공포에 의해 결정되었다.

모여 있는 하늘 수도원의 사부들 앞에 선 미쿨로프는 다양한 두루마리들을 제공받았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던 터라, 햇불 속에서 두루마리들이 빛나고 있었다. 어떤

두루마리는 매우 컸고, 어떤 두루마리는 새끼손가락보다 조금 큰 크기였다. 몇몇은 정교하고 화려한 문장으로 봉해져 있었다.

"네 시련의 목적은..." 베데닌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에게 시험을 내리는 것은 베데닌이었던 것이다. "정신, 무기, 그리고 공력으로 신들의 의지에 복종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자신의 제단을 버리고 신들께 복종하는 능력 말이다." 표면상으론 상냥해 보이는 얼굴에 어린 능글맞은 웃음은 이 수련생에게 가진 믿음이 얼마나 작은지 대변해주는 듯했다.

미쿨로프는 고민을 하는 동안 안에서는 자기를 평가하는 사부님들의 눈길, 밖에서는 불확실성과 육체적 위험을 느꼈다. 그의 두려움은 그 순간만큼은 당연해 보인 선택으로 그를 이끌었다. 바로 치유의 진언이었다.

돌돌 말린 양피지와 함께, 미쿨로프는 수도원 문장이 찍힌 밀랍으로 봉해진 접힌 종이 한 장을 받았다. 지령은 명확했다. 지금부터 이레 후에 열어보라. 즉 일주일 동안 기도와 명상으로 자신을 준비한 후, 여덟 번째 해가 뜰 때 봉인된 밀랍을 뜯고 추후 지령을 따르라는 것이었다.

새벽이 되었을 때, 미쿨로프는 수도원을 나섰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동쪽, 이브고로드를 둘러싸고 있는 산 깊숙한 곳으로 나아갔다. 두루마리와 접은 종이를 지니고, 허리춤에는 칼집에 꽂힌 주먹 단검만을 소지한 채였다. 음식이 없었으므로 일주일 간 단식해야 할 것이었다. 물도 없었다. 갈증을 해소할 방법도 찾지 못하는 자는 하늘 수도원의 수도사가 지녀야 할 지혜를 절대로 얻지 못할 테니까.

시험 첫 주에 물을 찾지 못한다면, 미쿨로프는 신들의 뜻에 따르기는커녕 그 목소리를 듣기도 전에 죽을 것이다.

차분하고 평온하게 한 주가 시작되었다. 미쿨로프는 식수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수년 간 기숙사의 창문으로만 봐 오던 가파른 언덕의 마루를 향했다. 미쿨로프는 남쪽의 콜 산까지 이어지는 이 산의 산기슭에서 개울을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아무 근거도 없었다. 단지 물은 항상 언덕 아래로 흐를 거란 직관뿐이었다.

미쿨로프의 귓가에 사부님들의 말이 들려오는 듯했다. 신들께서는 지식, 감각, 직관을 통해 말을 걸어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말을 따랐다. 미쿨로프의 확신은 보상을 받았다. 산기슭에는 작은 호수가 있었다. 물의 빛깔은 어두웠지만 맑았고, 거대한 바위들 사이로 조금씩 흘러 내려온 실개천이 호수로 흘러들고 있었다. 미쿨로프는 신들의 선물을 향해 절을 하고, 하루 간의 긴 산행에서의 갈증을 채우고 앞으로의 한 주를

대비하기 위해 듬뿍 물을 마셨다. 그는 이렇게나 빨리 물을 발견하게 되어 기뻐다.

이렇게나 강렬한 여름 열기 속에서, 물은 시험의 가장 중대한 요소였을 테니.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신들의 은혜 근처에서 거처를 찾기로 했다.

산속이었으므로 미쿨로프는 곧 어둠이 깔릴 거란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곧 돌출된 바위 밑에서 다른 곳보다 부드러운 땅을 발견했다. 미쿨로프는 그곳 또한 신들의 선물이라 생각했고, 감사하며 앉았다.

아침에 일어난 미쿨로프는 앞으로 몇새 동안 되풀이할 일상을 시작했다. 우선 호수에서 전날 여행의 때를 씻었다. 한 해 중 가장 더운 달이었으므로, 밤중에도 가혹할 정도로 불쾌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땀에 젖을 정도였지만, 미쿨로프는 매일 신들을 깨끗하고 흠 없는 상태에서 맞이하고 싶었다. 빛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미쿨로프는 발을 물에 담그고 잠수했다. 그는 최대한 오래 숨을 참았다. 그러는 동안 계속 신들께 당신들을 맞이할 자격을 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미쿨로프는 이후 새벽마다 목욕과 함께 기도를 재개했다.

미쿨로프는 사색에 잠겨 차분함, 침묵과 함께 하루하루가 지나길 바랐다.

미쿨로프는 전적으로 평온했다. 극복할 걸림돌도, 무찔러야 할 적도 없었다. 홀로 정적에 잠긴 채, 미쿨로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주일이 가기 전에 정적은 깨졌다. 가체프가 미쿨로프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리고 늘 그랬듯, 가체프는 말이 많았다.

나흘째 되던 날, 태양이 그 절정에 달하고 잔인하게도 더울 때 그의 고아 동료가 처음 말을 걸었다. 미쿨로프는 그동안 되도록이면 휴식처 근처에 머물렀다. 태양이 그 정점에 달했을 때도 수 시간 동안 그늘 아래 있을 수 있고, 풍부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태양빛을 직접 쬐면 쬐수록 더 지칠 거란 사실을 알았다. 미쿨로프가 그늘을 벗어나는 것은, 아침저녁의 열기에 빠져나온 몸의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물 웅덩이에 갈 때뿐이었다. 그렇게 조심을 했음에도, 미쿨로프는 이미 서서히 탈수 증세를 느끼고 있었다.

미쿨로프가 처음 느낀 불안이 서서히 의혹으로 변하고 있을 때 웬 도발하는 투의 목소리가 그에게 말을 건넨 것이다.

"내가 실패했는데 너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미쿨로프는 눈을 뜨고 그늘 밖을 응시했다. 야영지 건너 가체프가 태양빛 아래 수도원을 떠났을 때의 옷차림 그대로 팔다리를 벌리고 누워 있었다. 그는 달라 보였다. 어떻게 산속에서 몇 달을 보냈는데도 옷이 누더기가 되지도 않고 피부가 더러워지지도 벗겨지지도 않은 걸까? 하지만 그는 맹렬한 햇볕 때문에 노곤하다는 듯 비스듬히 누워 태평하게 미쿨로프를 바라보았다. "나도 이곳에서의 첫날은 비참했었지. 다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 다른 멍청이들이 이 지옥 같은 몇 주 간 살아남으려고 바둥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다시 웃음을 찾게 되더군." 가체프는 낭패라는 듯 눈썹을 치켜 올리며, 미쿨로프를 훑어보았다. "많이." 그가 덧붙였다.

미쿨로프는 너무나도 놀라 소리 내어 말할 수조차 없었다.

비록 침묵의 서약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신들께서는 고요함 속에서만 그들의 목소리를 들려준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미쿨로프는 그의 조롱을 듣고도 혀를 놀리지 않았다. 그리고 눈에 맺힌 땀 사이로 간신히 가체프를, 이미 죽었어야 할 소년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실체인가, 환영인가?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았고 아무 소리 없이 접근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미쿨로프는 가체프가 자신의 상상의 산물이거나 열기와 고독이 창조해 낸 환영이라 치부했다.

가체프가 말을 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도발투의 날카로움을 잃었고, 미쿨로프가 놀랄 만큼의 공포가 깃들어 있었다. 가체프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해. 그 어떤 수련생도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 앞으로도 못할 거고."

굵주림의 나날들은 곧, 정신을 찢어발기는 의혹의 나날들로 바뀌었다. 가체프의 씩씩한 말들을 들을 때마다 모든 감각이 악화되는 듯했다. 가체프의 이야기를 되풀이해 듣다 보니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봉인을 뜯고 시험에 착수하고 싶었다. 심지어 접힌 종이를 보지 않은 채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미쿨로프는 휴식처의 바위와 호수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려 했다. 하지만 근처에는 항상 가체프가 있었고, 열심히 기도하려는 미쿨로프를 향해 서글프게 웃어 넘기고 있었다.

그 며칠 간, 수많은 조롱과 의문들은 하나가 되어 그럴듯한 이론을 낳았다. 하늘 수도원의 사부들은 어리고 반항적인 수행자는 그 누구도 진급시키지 않으며, 수련생은 절대 수도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부들은 받아들일 수도사를 선택할 때 과도하게 신중했다. 그래서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순종적인 수련생을 골칫거리가 되기 전까지 노예처럼 부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시험으로 내모는 것이다. 남의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는 새로운 세대의 추종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그게 바로 하늘 수도원이 수 세기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니었을까?

미쿨로프는 공포가 견잡을 수 없어지면서 자신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징후와 음모를 상상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미쿨로프는 의혹을 물리치기 위해 시험을 통과하고 돌아온 고아들을 떠올리려 했지만, 아무도 떠올리지 못했다. 소문에 의하면 시험에 성공한 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수련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다른 동료들과 분리되었는데, 그것이 앞으로 수년간 그들이 누릴 보상이라고 했다.

가체프의 암시는 일리가 있었다.

“멍청한 미쿨로프.” 가체프가 말했다. “너는 거만하고 충동적이고 약해.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수도사가 될 순 없어. 형제들과 이름 모를 무덤에 묻힐 뿐이라고.”

가체프의 불길한 발언은 미쿨로프의 행동이 자신과 동료 수련생에게 불명예를 안겨줄 거란 베데닌의 수많은 끔찍한 예언들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지금, 미쿨로프는 가체프의 깨끗한 모습과 가장 엄했던 사부의 메아리 치는 말들을 믿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 그 둘은 모두 미쿨로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죽음보다 두려운, 죽음 전의 치욕 말이다. 수도사가 되고자 하는 소년은 가체프가 상상의 산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산에서 준비하는 한 주 동안 느껴야 할 외로움을 상기시키는 환영의 동료일 것이다.

그의 도발은 내 두려움이 내는 목소리다.

그렇기에 마지막 날, 가체프가 입을 열어도 미쿨로프는 마음을 다잡았다. 가체프는 그의 노력을 조롱했지만, 미쿨로프는 가체프가 땀과 고통과 떨치지 못한 의혹이 낀 망상이라 되뇌었다. 그리고 고행 일곱 번째 날, 가체프는 마침내 미쿨로프의 허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 후, 소년은 미쿨로프의 목숨을 구했다.

미쿨로프가 밀랍 봉인을 뜯고 지령을 확인할 다음 날을 기대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더 빨리 자신의 운명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새벽이 산기슭보다 빨리 찾아오는 산의 정상에서 새로운 날을 맞이할 셈이었다. 비록 돌이 많은 경사였기에 험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 터이지만, 몇 분이라도 빨리 이 고통을 빨리 끝낼 수 있다면 그 고생은 충분히 가치 있어 보였다.

미쿨로프는 여정을 떠났다. 태양이 막 절정을 지난 상태였지만 열기가 남아 있었고, 오히려 점점 뜨거워지는 듯했지만 그래도 출발했다. 그는 해가 지기 전에 정상에 올라서 마지막 밤을 신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고 명상하며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물 걱정은 별로 하지 않았다. 계획한 길로 간다면, 야영지 근처의 호수로 흘러드는 실개울이 가까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가체프는 그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다.

처음 미쿨로프는 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으리라고 확신했지만, 찌는 열기와 분투로 생긴 갈증에 허가 부풀어 오를 정도였다. 그는 방향을 돌리고 싶었지만, 야영지보다 정상이 더 가깝다는 걸 확인하고는 계속 나아갔다.

“이 짓, 이 노력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제는 헐떡이고 있는 미쿨로프는 불청객을 무시했다.

“넌 더 빨리 죽으러 가는 것뿐이라고.”

바위 하나하나가 미쿨로프의 발목을 비틀고, 균열 하나하나가 미쿨로프의 발을 묶었다.

“신들께 넌 고작 여흥일 뿐이야.”

태양에 쇠약해지고 기진맥진해진 만큼 미쿨로프는 지형의 위협에 무릎 꿇게 되진 않을까 두려웠다. 만약 뼈라도 부러진다면 계획보다 빠르게 치유의 진언을 사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정작 필요할 때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을 테니까.

“일천 한 명의 신은 모두 무력해.”

용서할 수 없는 모욕을 들은 미쿨로프는 분노를 터뜨리고픈 충동을 느꼈으나 베데닌의 장황한 꾸짖음을 떠올렸다. 신들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모든 것 안에

있다. 그렇다면 분명 미쿨로프의 분노 속에도 존재하리라. 이 생각은 가체프에게 소리를 지를 새로운 힘을 주었다. 하지만 이 힘은 이용될 힘이였다. 분노로 낭비될 그런 힘이 아니었다. *분노를 삼키거나 떨쳐버리지 말라. 느껴라. 그리고 이용하라.*

새로운 힘의 원천과 함께, 미쿨로프는 위쪽으로 걸어갔다.

해 질 녘이 되었을 때, 미쿨로프는 정상 of 절벽으로 이어진 곳에 도착했다. 그는 너무나도 무력했기에 쉴 곳을 찾을 여유도 없었다. 타는 듯한 눈을 찡그린 채, 그는 떨어질 걱정이 없는 곳까지 기어간 다음, 돌로 된 지면 위에 무너지듯 쓰러졌다.

그는 차가운 어둠 속에서 깨어났다. 관절 쪽이 뻣뻣한 걸 보니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으리라. 눈을 뜨는 데는 노력이 필요했다. 가까스로 눈을 뜨니 근처 바위에서 고요 속에서 머리를 설레설레 젖고 있는 가체프가 보였다. 여명이 동쪽 지평선에 보드라운 푸른빛을 불러왔을 때, 미쿨로프는 일어나려 했지만 일어날 수 없었다. 잠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 했다. 그는 탈진 상태였다. 미쿨로프는 하늘 아래 누운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태양이 곧 지평선으로 올라올 듯했지만 그는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했다. 마치 몸과 머리가 분리된 듯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아침이면 볼일을 보고 싶던 충동마저 사라진 것 같았다. 미쿨로프는 이를 나쁜 신호로 생각했다. 그의 몸은 산에서 생존하기엔 수분이 부족했다.

이런 극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복돋는 데 실패한 것이다. 머리 속에서 베데닌의 저주가 메아리쳤다. *넌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할 게야.* 미쿨로프는 스스로 작은 욕설을 덧붙였다.

"그래." 가체프가 미쿨로프의 머리 속에 음성을 울리며 동의했다. "넌 어리석은 놈이야."

다시금 분노가 치밀었다. *내가 실패하길 바라는군.* 미쿨로프는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금 분노를 통제했다. 몸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미쿨로프는 분노의 힘으로 일어섰다. 그가 두 다리로 서자, 여명의 첫 햇살이 그의 이마에 닿았다.

미쿨로프는 어지러움이 가실 때까지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리고 손에 접힌 종이가 들려 있음을 깨달았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의 윗옷 주머니에 들어 있던 것이었는데 분명 찾으려 한 기억은 없었다. 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가락으로 봉인을 뜯으려고 종이 사이를 비집었다. 고작 밀랍 덩어리를 뜯는 데 얼마나 큰 노력이 들었는지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종이를 펼쳐 내용을 읽었다.

안으로.

미쿨로프는 너무 피곤해서 화조차 낼 수가 없었다. 종이에 담긴 내용이 딱 단어 하나라고? 이게 뭐 개소리야? "안으로"는 지령이 아니었다. 아니 실수였다. 사부님들이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아마 다른 소년에게 줘야 할 같은 별 것 아닌 심부름을 그가 받은

것일 테다. 심지어 그 순간에도 동료 고아 중 하나는 그날의 심부름을 받을 줄 알았다가 미쿨로프의 시련이 담긴 상세한 지령을 받곤 경탄하고 있으리라. 지령의 부조리함은 웃기는 수준이었다. 너무 어이가 없었던 나머지, 그는 그 산꼭대기에서 그대로 무너져내려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미쿨로프는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커다란 웃음을 막으려 애썼다. 그의 웃음은 가체프에게 만족을 줄 뿐이다.

감히 신을 모욕하고 싶지 않았다. 실수로 적힌 지령일 리가 없다. 미쿨로프는 이 단어를 현 상황에 끼워 맞출 수 있을지 머리를 굴렸다. 분명 뭔가를 간과했으리라.

안으로.

그의 생각은 질문으로 형상화되었다. *어디 안으로?* 그때, 미쿨로프의 눈이 동굴의 입구처럼 보이는 곳에 고정되었다. 동굴은 그가 타고 올라온 쪽의 반대편, 오십 보 아래쯤에 있는 바위에 뚫려 있었다. 경사면에서 폭이 팔 길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복잡하고 정교한 아치형의 지붕에 덮인 동굴의 입구가 그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다.

안으로.

사부들은 어떻게 내가 산을 오를 거란 사실을 알았을까? 그들은 어느 방향으로 가라는 지령조차 내리지 않았다. 지금껏 미쿨로프는 본능에 이끌려 움직여왔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베데닌의 말들이 머리 속에 불현듯 떠올랐다. *네가 본능이라 느끼는 것은 사실 신들의 성스러운 인도에 가깝느니라.* 지금껏 그의 여정은 자기도 모르게 어떤 계시를 받은 결과였던 걸까? 만약 그랬다면 사부들 또한 그런 계시에 이끌려서, 시험을 치르는 수련생에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지 모르는 채 이 한 단어짜리 지령을 준비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닿았다.

입구는 답을 주지 않았다. 아침 햇살이 미쿨로프 아래쪽의 경사에 드리워져 빠르게 주위의 바위를 달궜다. 이날 미쿨로프는 지난 날들보다 더욱 강하게 타는 듯한 더위를 느꼈다. 신들이 그의 시험을 돕기 위해 정한 장소이든, 전적으로 우연이든, 미쿨로프는 동굴이 최소한 열기로부터는 그를 보호해줄 거라 생각했다.

약해진 근육 안에서 피로와 의지가 맞싸우는 것을 느끼며, 미쿨로프는 부자연스럽게 휘청거리며 아래쪽으로 발을 옮겼다. 의지라기보단 중력이 그를 동굴 입구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어둠 속에 무엇이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미쿨로프는 휘청거리며 앞으로 나아가 어둠에 몸을 맡겼다. *안으로.*

왜 가체프가 따라 들어오지 않는지 어렵פות이 의아해하며.

밀을 향해 가면서 미쿨로프가 주위로부터 받은 인상은 '불가능'이었다. 이 전당은 존재할 수 없다. 그곳은 깎아낸 곳이었다. 아니, 산의 바위 안을 정교하게 조각해낸 것에

가까운 은신처였다. 그 정도를 파악하기도 힘들었지만, 표면으로부터 깊숙이 들어온 지금
앞이 보인다는 사실이 더 기묘했다. 처음에 험한 계단을 내려갈 때만 해도 햇빛이 새어
들어오는 거라 생각했지만, 백 발자국쯤 걸어 내려간 다음에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아무리 산꼭대기의 햇빛이 강렬하다 해도 이 깊은 곳까지 뚫고 오기엔 너무나도
약했고, 바위 속에 숨겨진 통로 혹은 틈 사이에서 이런 빛은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였다. 마침내 도착한 곳에는 길고 평평한 전당이 펼쳐져 있었다. 눈앞의 경관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기에, 미쿨로프는 모든 요소 하나하나를
불가능으로 치부할 수 밖에 없었다. 벽 자체가 희미하고 부드러운 빛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대체 뭐지? 미쿨로프는 물었다. 그리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벽의 돌을 살펴보았다.
빛이 마치 피처럼 흐르고 있었다. 빛은 그의 심장 박동에 맞춰 맥박 치며 꾸준한 박자로
흐르고 있었다.

난 대체 어디에 들어온 거지?

미쿨로프는 이 광경이 신들의 행동에 대해 알고 있던 것과 일치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신들께선 사람의 작품이나 자연의 신호를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거신다고 했지.*

그리고, 신들께서는 모든 것에 존재한다.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돌 안에 빛이 깃든 모습은

마치 내가 신의 작품이라고 외치는 듯했다. 그러니 이 계단, 이 전당은 분명 사람이 만든 곳이지만, 신의 의지를 형상화한 것이 틀림없다. 이 생각을 뒤집을 그 어떤 근거도 보이지 않자, 미쿨로프는 잠시 이곳에 담긴 뜻이 무엇일지 생각해보았다.

집중할 수 없었다. 갈증이 그의 생각을 방해했다. 게다가 꼼짝없이 서 있는데도 허벅지가 부들거렸다. 칠일 밤낮으로 견뎌야 했던 결핍이 그의 몸과 머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미쿨로프는 그 불편함을 누르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했지만 그래도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생각은 가체프로 다시 돌아왔다. 미쿨로프는 왜 이 소년이 자신을 따라 내려오지 않았을지 궁금했다. 미쿨로프가 신들의 뜻을 숙고하려고 자신을 채찍질할 때마다, 가체프로에 대한 집중도만 더 올라갈 뿐이었다. 소년은 며칠이나 미쿨로프의 실망한 모습을 보길 기대해 왔고, 심지어 즐기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쿨로프가 마주한 혼란과 실패를 축하할 기회를 놓칠 리 있겠는가?

미쿨로프는 고개를 들어 방금 내려온 계단 꼭대기에서 반짝이는 작은 빛을 보았다. 목을 길게 빼어 돌의 돌출부 너머로 미쿨로프는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주던 그 소년을 보았다. 몇 살 더 먹은 그 소년은 진지하고 조용히 미쿨로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독설도,

험담도, 도발도 없었다. 그저 말없이 지켜 서 있을 뿐이었다. 가체프는 마치 미쿨로프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로부터 계단을 지키고 있는 듯 했다.

아니면 미쿨로프가 밖으로 나가 일광을 맞이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일까?

저 멀리 위에 있는 가체프를 보며, 자기가 산의 얼마나 어둡고 깊은 곳까지 내려왔는지 실감한 미쿨로프는 두려워졌다. 그는 가체프에게 몸짓을 보냈다. 전당의 그림자 너머를 가리키며 몇 살 더 먹은 소년에게 따라오라 손짓했다.

가체프는 계속 그곳에 서 있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이건 네 시험이야." 그 말은 미쿨로프에게 무겁고도 차가운 비와 같았다. "난 더 가지 않아."

몸을 전당 쪽으로 돌린 미쿨로프의 목이 메어왔다. 그는 벽 안에서 살아 있는 듯한 빛에 다시금 집중했다. 부드럽게 요동치는 빛의 맥박은 미쿨로프에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귀에 들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미쿨로프는 이 맥박이 회랑의 끝에 있는 그림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미쿨로프가 바라던 신호는 아니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있었다. 명백히 앞으로 가라는 표시였다. 미쿨로프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끌고, 움직이는 빛의 인도를 따라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그는 미로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혹은 무시무시한 묘지가 솟아나 날 삼킬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쿨로프는 곧 돌조각이 깔린 텅 빈 방의 입구에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비록 산 깊숙한 곳에 다른 문도 없이 존재하는 방이었지만, 그 안은 붉은 기가 도는 화려한 진주빛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다. 방은 미쿨로프가 보기는커녕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빛깔로, 붉은 빛이 도는 경이로운 색조로 가득 차 있었는데, 종종 돌들 사이사이에 자라나고 있는 이끼의 녹색에 상쇄되고 있었다. 그 붉은색이 빛에도 깃들어, 벽에서는 이제 불타는 듯한 맥박이 쿵쿵쿵쿵 뛰고 있었다.

이게 내 시험인가? 여긴 아무것도 없는데.

미쿨로프가 방에 들어가려고 한 발을 들자, 가체프의 목소리가 그를 휘감았다.

"출구도 없는 방에 그렇게 태평스레 들어갈 셈이야?"

미쿨로프는 지나온 쪽을 돌아보고 싶은 욕구를 느꼈으나, 가체프가 따라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건 머리 속에서 두려움이 내는 목소리일 것이다.

그는 진실이라 믿는 모든 것과 공포를 저울질했다. 신이 지금껏 그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고 믿는 이상, 이제 와서 경로를 바꾸진 않을 셈이었다. 미쿨로프는 용감하게 방의 돌바닥에 발을 들였다.

등 뒤에서 쇠창살이 내려오지도 않았다. 방이 물로 가득 차지도 않았다. 사방의 벽이 그를 뭉개려고 다가오지도 않았다. 대신, 벽에서 빛나던 에너지가 일정한 박자로 울리기 시작했다. 맥박이 더는 방향을 표시하지 않는다. 신이 원한 곳에 도착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뭘 하란 말일까?

그는 기다렸다. 벽이 박자를 맞춰줬는데도 그곳에 얼마나 서 있었는지 감을 잃었다. 그곳에서는 한 순간 한 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미치게 똑같았기 때문이다. 미쿨로프는 신의 의지라고 믿은 본능을 따랐지만, 끝내 녹초 상태로 이 막다른 곳에 왔다. 심장 박동 수가 늘어나자 그의 관자놀이에 있는 피가 재점화되었다. 분노가 시간 감각을 되찾아 주었다. 그는 영원처럼 이곳에 서 있었다. 좌절감이 당장 방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그를 잡아두고 있었다. 그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수도원 정문에서 실패의 장막에 싸인 채 귀환한 자신을 보고 능글맞게 웃는 베데닌의 얼굴을 보았다. 그런 치욕을 감내하느니 영원이라도 기다리겠다. 신들께서는 말씀을 하실 것이나, 한낱 수련생의 때가 아니라 당신들의 때가 왔을 때 그리하실 것이다.

그 주위의 광휘가 흐린 빛을 띠기 시작했다. *신들의 결정에 따라라.* 그렇게 말하는 듯 했다. *차분히 그분들의 뜻을 기다려라.*

미쿨로프는 절대 참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힘겹게 무릎을 꿇고 바닥에 고분고분한 자세로 앉았다. 무기력한 몸에 고통이 커질 때면 정신을 가라앉히고 고통을 잊기 위해 조용히 말을 내뱉었다. *고통이여, 환영한다. 부디 내 집에서 편히 지내거라. 여기 오래 있지는 못하겠지만 나와 함께 있을 때, 난 너를 귀빈처럼 대할 것이다.*

한참이 지난 것 같았지만, 미쿨로프는 계속 버텼다. 지는 싸움이었다. 고통치는 쓰라림이 그의 의식을 잠식하면서 신의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 그를 묶어두었다. 땀이 눈으로, 또 돌에 닿아 있는 맨 무릎으로 막힘 없이 흘러내렸다. 고통과 땀방울은 그의 정신을 산만하게 했고, 그를 달래는 듯했던 벽의 고동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울리던 고통이 가체프의 도발처럼 느껴졌다. 미쿨로프는 변함 없는 일관성에 압도되었다. 벽 안에서 깜박거리는 빛, 축축한 광채를 뿜어내는 돌, 그 사이사이에 스며든 습기, 천장에 매달려 흔들리는 이끼.

흔들린다?

미쿨로프는 눈을 깜빡이고 지난 몇 초 동안 본 모든 것들을 기억해 내려 애썼다. 그랬다. 그는 방의 답답하고 단조로운 방에서 작고 미묘한 변화를 감지한 것이다. 그는 무엇이 변했는지 맹렬히 찾아내려 애썼다.

이 미약하고 끈질긴 녹색 생명체는 그가 처음 무릎 꿇었을 때부터 흔들리고 있었던 걸까?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공기에는 그 어떤 기류도 없는데.

이끼를 보며, 미쿨로프는 확신에 찼다. *아니, 내가 들어왔을 때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곧 무엇이 매달린 이끼 가닥을 움직였나 주시하였다.

탁하고 가느다란 증기가 그의 눈 앞의 벽돌 사이로 새어 나와 미쿨로프 머리 위를 맴돌고 있었다. 그 증기는 불면 사라질 정도로 미약했지만, 중대함과 위협을 담고 있었다. 미쿨로프는 벽 안에서 고동치는 빛의 울림에 미세한 진동이 물결치는 것을 보았다.

그 무언가는 불가사의하게도 진줏빛 빛의 근원으로부터 점점 형상화되기 시작했고, 그 안의 무언가가 굵더니 마침내 진물 같은 걸 흘리기 시작했다.

방에 새로운 조합의 색이 생겨났다. 노란색, 녹색, 파란색... 하지만 모두 역겨운 색조였다. 색들은 형태를 이루기 시작했고, 흘러나와 하나로 뭉쳤다. 부패한 듯한 그것은 마쿠로프의 눈앞에서 점점 더 커졌다. 미쿨로프는 똑똑 떨어지는 이것의 이름을 생각해내려고 애썼다. 그건 고름집이었다. 그러나 꿈틀거리는 그 덩어리의 중앙을 보니 그런 판단에 의혹이 생겼다. 그 형체의 중앙은 비어 있었던 것이다. 상처잖아. 공중에 길고 가늘게 틈이 벌어져 있었다. 그것은 그의 감각과 기대치와는 전혀 달랐다. 인간과는 전혀

뺨지 않았고, 기형의 덩어리도 아니었고 구름 같은 유령도 아니었다. 마치 상처가 몸에서 떨어져 나온 채 공중에 떠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런 상처를 입었을 육신이 없었다. 마치 공기 자체가 보이지 않은 무기로 난도질당한 것 같았다. 이런 열상을 만들 수 있는 칼날이라니. 미쿨로프는 본능적으로 측면에 있던 주먹 단검을 찾았다.

미쿨로프는 마비된 듯 서 있었으나, 그의 손은 무기의 손잡이 가까이에 있었다. 종양은 금방이라도 움직일 듯 고동쳤다. 미쿨로프는 육체적으로 탈진해 있었고, 그것의 존재감에 압도된 것을 느꼈다. 가 아는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상처는 명확히 살아 있었다. 칼날이 공기를 찢었듯이 미쿨로프의 정신을 찢어 발기기 위해 나타난 신비로운 존재였다.

종양이 움직이자, 미쿨로프는 그것에서 물러섰다. 혐오감이 느껴졌지만 그와 동시에 매료되었다. 미쿨로프는 자신이 책략에 당하고 있다는 걸 몰랐기에 대응도 늦었다. 그 사실이 뇌리에 들어왔을 때, 그는 오른쪽 주먹에 주먹 단검을 쥐고는 종양에 겨누었다. 그의 행동에, 떠 있는 상처가 움직였다. 그것은 소년의 무기와 함께 움직임에 맞춰 전진과 후퇴의 소름 끼치는 춤사위를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미쿨로프는 놈의 움직임을 너무 늦게 파악했기에, 크게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상처가 방에서 나가는 유일한 문을 막은 것이다.

미쿨로프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벽에서 이제 아무것도 새어 나오지 않는 걸 확인했다. 그의 다리, 허리, 어깨의 약화는 무시하기엔 너무 강렬했다. 그의 힘과 체력은 한정되어 있었고 빠르게 한계로 치닫고 있었다. 이런 교착 상태는 하늘 수도원 수도사의 길이 아니었다. 사부님들은 수련생들에게 궁지에 빠졌을 때 포기하지 말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해결책을 직접 찾으라 가르쳤다. 그는 체력이 남아 있는 동안 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했다. *상처 따위 꺼지라지*. 미쿨로프는 돌연 방의 출구를 향해 달리며 생각했다.

종양이 그를 막았다. 길을 막은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는지 몸체를 던져 미쿨로프에게 난폭한 공격을 가했다. 몸 전체를 날려 미쿨로프를 공격하는 듯했다. 종양의 타격은 축축하고 뜨거운 느낌이었다. 수련생은 방심했던 자신의 모습에 격노했다. 마지막 순간에 피하려고 했지만, 볼에 크게 한 대 맞았던 것이다. 미쿨로프는 끈적이는 축축한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자신이 감염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짝 조여졌다. 어깨에 걸친 윗옷을 잡아채어 묻은 액체를 닦아냈다. 하지만 뜨거움은 남아 있었다. 뒤로 넘어진 미쿨로프는 액체의 존재를 온몸에서 느꼈다. 역겹고 불쾌한 것이 피부에 묻었고, 심지어는 기름 낀 긴 머리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바닥에 큰 대자로 누운 미쿨로프는 뒤늦게 주먹 단검을 들어올려 뒤이은 공격을 막으려 했다. 그리고 순간 그런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왜 진작 무기를 쓰지 않았을까?

그는 그 실수를 만회할 생각이었다. 미쿨로프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역겨운 종양을 향해 몸을 내던졌다. 하지만 놈이 공격에 워낙 신속히 반격했기에, 미쿨로프는 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무기를 가장 단순한 방법만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 덩어리를 잔인하게 베었지만, 기운을 심지는 못했던 것이다. 공포에 압도된 나머지 공력을 집중해서 사용하는 데 실패했던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박하게 필요한 이 때에.

미쿨로프는 후속타를 예상하고 급하게 일어서서, 검이 입힌 피해를 가늠했다. 단검을 아주 약하게 사용했을 뿐인데도 충분했다. 종양은 부들부들 떨리더니 시들기 시작했다. 공기의 찢어진 부분은 전보다 더 커진 듯했고, 그 보이지 않는 원천으로부터 그것은 피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며 미쿨로프의 눈 앞에서 부풀어올랐다. 미쿨로프는 관자놀이에서 고동치는 피와 마지막 공격에서의 아드레날린을 느끼며, 괴물이 몸을 추스르고 있는 바로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알았다. 바로 다시 공격해야 해! 지금 바로! 그래서 그는 다시 검을 앞으로 뺀고 이번에는

정신을 집중하여 그에게 필요한 힘을 불러냈다.

이 시험은 분명 그의 기량과 지략을 시험하는 중요한 시험이었다. 이 전투는 사부님들과 일천 한 분의 신들께 자신이 더 깊은 수련을 받을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치욕스럽게도, 그는 즉시 성공하지는 못했다. 비록 하늘 수도원의 수련장에서 힘을 본능적으로 이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으나, 지금은 연습이 아니었다. 집중해. 그는 자신을 다그쳤다. 힘을 방출하는 데 집중해. 그는 머리 속으로 빠르게, 하지만 절박하게 순서를 정리했다. *그 필요성에 집중해라. 의지에 집중해라. 갈망을 이용해 온몸에서 힘을 방출해라.* 그러나 미쿨로프는 너무나도 절박했던 터라, 그 과정이 서두른다고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서두르지 않고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는 걸 잊었다. 그러므로 그의 공격은 무력하고, 평범하고, 힘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달랐다. 결국 몸을 추스린 종양은 다시 공격을 해왔고, 반격에 대한 두려움이 그 힘을 이끌어 냈다. 그 힘은 괴물이 반격해온 직후에 느껴졌다. 놈을 막아낼 수 없다는 공포가 그의 검날에 힘을 불러왔고, 짧은 힘의 파동이 온 방향으로 찌르듯 날아갔다. 그 힘에 놀란 미쿨로프는 통제력을 잃고 그 위력에 뒤로 튕겨져 나갔다.

미쿨로프는 구르며 두개골을 강하게 바닥에 짚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일어서려 했지만 머리가 격렬하게 핑핑 도는 바람에 머리를 숙인 채 한참을 가만히 있어야 했다. 내 검술 실력은 어떻게 됐지? 숙달됐다고 느낀 건 모두 내 상상이었나? 아니면 이 시험의 격렬함과 위험성이 내게 너무 큰 짐이었을까? 자신이 얼마나 부상당했는지 볼 순 없었지만, 힐끔 상대를 본 미쿨로프는 이 싸움이 일방적이지만은 않았음을 깨달았다.

지독한 모습만큼, 미쿨로프는 하나의 악몽 같은 사실에 망연자실했다. 놈은 더욱 크고 치명적인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종양은 이제 미쿨로프보다 훨씬 컸다. 놈은 뜨겁게 격분해 있었다. 보이는 마디마디가 타올랐고, 새빨강게 붉어졌다. 살점이 길게 찢어진 자국들은 검에 베인 것인데도 매끈하지 않고 마치 손으로 뜯어낸 듯 들쭉날쭉하고 너덜너덜했다. 괴물은 거친 숨을 쉬며 격렬하게 끓어올랐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 더욱 강해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미쿨로프는 숨쉬기에 어려움을 느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에 진물이 차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나쁜 것은 누더기가 된 종양의 내장이 불타는 수액을 사방에 뿌리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미쿨로프는 수액을 밟고 미끄러질 뻔했는데, 그 느낌이 마치 불을 밟은 듯했다.

미쿨로프의 정신이 손을 뻗었다. 그의 투지를 다지는 대신, 그는 분노의 원천을 포용하고 그것이 자신 안에 호수를 이루고 있음을 발견했다. 가체프와 함께 정상으로 오르는 경험을 계기로, 그는 분노조차도 신의 선물임을 깨달았다. 생각 없이 외면하는 대신, 미쿨로프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고 이를 이용했다.

검날에서 분출된 힘은 순수했고, 미쿨로프의 겨냥도 정확했다. 백열 상태의 불꽃이 돌풍처럼 전방으로 발사됐다. 그가 달성했던 그 무엇보다 강력했다. 검날에선 힘이 마치 분노의 화신처럼 뿜어져 나왔고, 그 기세에 둘 다 뒤로 밀려났다. 힘의 파동은 방의 벽에 부딪혀 그대로 반사되었고, 동시에 두 방향에서 미쿨로프와 종양을 덮쳤다. 수도사를 꿈꿨던 소년은 그 격돌에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지만, 결과적으로 힘 없이 누운 채 충격 속에서 눈을 떴다.

헉헉거리며 숨이 돌아왔고, 그는 살아 있음에 감사했다. 의심할 나위 없이, 그 정도면 충분했을 것이다. 아마 괴물은 죽었을 것이다. 미쿨로프는 고개를 돌려보려 했으나 할 수 없었다. 힘이 없었다. 미쿨로프는 머리 위로 종양이 보이자 절망의 쓴맛을 느꼈다. 괴물은 끈질겼다. 그리고 그 전보다 더 크고 강해져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신들이 날 가지고 노는 건가? 미쿨로프는 흘러내린 내장이 돌에 닿을 때마다 지글거리고 튀는 것을

보았다. 놈이 배출하는 배설물조차 더 강해져 있었다. 마치 놈의 불을 끄기는커녕 지핀 듯했다.

그리고 미쿨로프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괴물이 그에게 오염 물질을 튀겨도, 타오르는 고통의 열기가 느껴졌음에도 움찔할 힘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질병과 고통 속에서 죽어갈 자신의 운명이 명확하게 보였다.

"멍청한 놈." 목소리가 들렸다. "넌 너무 거만하고 충동적이며 약해." 미쿨로프는 누구인지 알았다. 가체프가 내 최후를 보러 온 것이다. 머리 속의 미약한 일부에만 궁금해할 힘이 남아 있었다. 위쪽의 입구에서 더 오지 않겠다더니 어떻게 된 거야? 그는 그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들려오는 것이며, 그의 공포가 자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 목소리를 낸 거라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다. 그러나 가체프를 말할 이었다.

"네 행동은 너와 우리 수도원에 수치로 남겠지. 단지 수도원에 남기고 온 자들뿐 아니라 너 이전에 이 시험을 치른 모든 이들에게." 그 말들에 미쿨로프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들이 옳았다. 미쿨로프는 거만하게도 그 이전에 많은 자들이 실패한 것에 자기는 성공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도 다르지 않았다. "변변찮은 고통에 집중하면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래, 사실이였다. 고통 속에서 미쿨로프는 아직 그들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 진정 한 번도 그 목소릴 들을 수 없었다. 가져갈 진언을 고를 때에도, 신의

인도를 들으려 애썼다면 다른, 더 나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공격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다. 비전 공격이라면 종양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신들을 따르지 않고 충동을 따르면 날 절대 구할 수 없을 거야." 미쿨로프는 그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이제 와서 어떻게 치유가 그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단지 고통이 연장될 뿐이다. 회복하여 한 번 더 공격해 봤자 괴물을 더 크게 만들 뿐이다.

가체프의 말이 불현듯 떠오르자, 미쿨로프의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날 절대 구할 수 없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지? 구한다고?

"충동을 따르면 너도 죽을 거야."

내 충동이라니. 미쿨로프는 아래를 보았다. 치유의 두루마리가 갈기갈기 찢긴 윗옷 주머니에 들어 있었다. 양피지는 불꽃과 기운에 타고 그슬려, 미처 쓰기도 전에 거의 못쓸 상태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이 자신 위에서 타오르는 혐오스러운 형체에 다시금 고정되었다. 이 음울한 방의 모든 공기를 찢어발긴 지독한 종양 본체, 그 상처는 계속해서 자라고, 또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쿨로프는 이해했다.

그래, 충동을 따라선 안 돼.

까매진 손가락을 부들부들 떨며, 미쿨로프는 두루마리를 펼쳐 읽었다. "재즈 베이 포즈드라뷰." 불명확한 말이었다. 익숙하지 않은 발음이었다. "프렐루젼 바즈 도브레이." 비록 너무나도 약했기에 움직임이 어설프고 완전히 집중할 수 없었지만, 한 손으로는 사부님들에게 배운 손짓을 해 보였다. "비멘쥬 테 테이속 인 엔제 보게프 오브노비움 바즈." 미쿨로프가 완벽하게 해낸 것이 한 가지 있었으니, 주문과 손짓으로 자신이 아닌 그 위에 있는 종양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쿨로프는 바닥에 누웠다. 힘이 점점 빠지고 있었지만, 이해가 될 것 같았다. 괴물의 본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었다. 상처를 공격한다고 상처를 제거할 수 있을까? 아니다. 더 큰 상처를 만들 뿐이다. 상처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치유하는 것뿐이다.

그의 행동은 비이성적이었고, 위험했다. 회상을 통해, 미쿨로프는 이 괴물이 먼저 공격하진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단순히 반격을 했을 뿐이었다. 미쿨로프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괴물의 기묘하고 섬뜩한 걸모습을 두려워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문 출구를 막은 것 외에, 종양은 그 어떤 공격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처 그 자체는 결코 공격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공격한 사람은 그랬다.

그의 입이 최후의 주문을 마치자, 두루마리는 그의 손에서 먼지가 되었다.

미쿨로프는 위를 보고 누더기가 된 상처의 가장자리가 깨끗하게 꿰매진 것과 끈적이는

고름이 적어진 것, 거대한 괴물이 훨씬 더 작아진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강하고 팔팔했으며, 그 무엇보다도 아직 방의 출구를 막고 있었다. 자신의 눈으로 증거를 확인한 미쿨로프의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진언의 효과는 여기까지였다. 그의 정신은 이미 기억에서 사라지기 시작한 난해한 주문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애썼다.

진언으로는 부족했다. 하지만 이제 어쩔 도리가 없었다. 미쿨로프는 조용히, 하지만 거칠게 신들에게 애원했다. 신들이시여, 제발 저에게 답해주십시오!

절실함은 그의 머리 속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자신을 가르치는 목소리를 들었다. 필요성에 집중해.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그 말이 수련장에서 보낸 날들에 자신에게 했던 말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필요성에 집중하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그 필요한 순간이었다. 이 초자연적인 괴물을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이 방을 살아서 나갈 수 없을 테니. 아니 쓰러뜨리는 게 아니었다. 치유해야 했다. *정신에서 흘러나오는 힘을 방출시키고자 하는 갈망을 몸의 모든 근육과 마음에 전해라.*

미쿨로프는 의식 속을 방황하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이 환부를 치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전적으로 집중했다. 그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취했다. 그 아무리 의미 없어 보인다고 해도. 그는 괴물을 향해 양손을 들어올렸다. 위로하고 안심시키려는 의도의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다. 그리고 미쿨로프는 괴물이 머리 바로 위에 떠 있는

것을 보고는 팔을 뻗어 괴물을 안았고, 그러자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괴물에게 힘이 전달되었다. 마침내,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던 극심한 집중의 몇 분이 지나고, 탈진한 미쿨로프의 눈은 감기고, 팔은 무너지듯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감각 없이 누워 있었다. 움직이기엔 너무 약했다. 마침내 잠이 그의 눈썹 사이에 가볍게 입맞춤을 해 그를 재웠다.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눈을 뜨고 머리를 들 힘이 어디서 생겼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마침내, 그는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머리 위에 떠 있던 그것은 사라졌다. 그 무엇도 그를 위협하지 않았다. 그는 오래 기다렸고, 마침내 그의 본능이 말해주는 걸 받아들이기로 했다. 종양은 없었다. 상처는 치유되어 사라졌다.

팔꿈치로 몸을 일으키며, 미쿨로프는 처음 보는 작은 방을 바라보았다. 수도원의 수도사 방과 맞먹는 작은 크기였다. 보아 하니 종양이 치유되면서 이 방이 나타난 모양이었다. 그 안에서 미쿨로프는 먹을 것을 발견했다. 갈증을 해소할 물 항아리와 몸에 영양분을 공급할 염장육이었다. 미쿨로프는 너무나도 약해져 있었기에 식량을 먹으면서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 대신, 내내 그가 배운 것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초연하게, 매우 천천히 먹고 마셨다. 그는 비밀의 방을 살펴보고 이 방을 은폐시킬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일지 살펴보았다. 힘이었다. 사부님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해둔 힘이 틀림없다.

미쿨로프는 자신의 미약한 능력으로도 느낄 수 있었다. 이날의 시험은 그의 머리 속에 큰 문을 열어주었고, 그로써 그는 신들의 힘의 존재를 미약하게나마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비록 딱딱한 고기를 기계적으로 씹고 물로 삼켰지만 그는 방 주위를 둘러보고 처음 생각보다 더 큰 힘이, 훨씬 더 큰 힘이 그를 둘러싸고 있음을 알았다.

음식을 삼키며 그는 더 철저하게 방을 검토했다.

미쿨로프는 본능적으로 종양처럼 신비로운 존재를 소환하려면 통제력과 지배력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양이 등장하는 시기는 수도원으로부터 누군가가 도착하는 순간과 거의 일치하리라. 하지만 치유되어 소멸되면 내부의 방이 열리면서 승자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이다.

혹은 패배한 자들의 시체를 보관하든가.

미쿨로프는 방에 깃든 힘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 힘의 목적도 알 수 있었다. 은폐였다. 사부님들은 이 아래에 뭔가 다른 것들도 숨겨 두었다. 무엇일까 생각하는 미쿨로프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용해 차분함을 찾았다. 하늘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조화로운 공력을 통해서만 신들의 힘을 끌어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천천히 미쿨로프는 깊게, 고르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자신이 완전히 평화로운 상태가 되자, 그는 팔을 뻗어 힘을 건드리고는 손을 저으며 명령했다. *사라져라.*

다른 방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안에는 동료 수련생들의 시체가 쌓여 있었다.

그 수가 참 많았다. 희망을 상실한 채 유기된 그들은 모두 삭막하고 소름 끼치는 모습으로 부패하여 애처롭기 그지없었다. 이 시험을 통과한 수련생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 세기 동안 수도사가 되길 꿈꿨던 반항적인 아이들이 모조리 이곳에 시체가 되어 모여 있는 듯했다. 몇몇은 먼지가 두텁게 쌓인 해골이었고, 몇몇은 다양한 부패 단계에 있는 마른 시체였다. 그의 눈은 그들 모두를 바라보았고, 마침내 하나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다른 이들에 비해 더 최근에 죽은 자 같았다. 덩치도 더 컸다.

가체프는 우리들보다 키가 컸다.

한때 자신을 괴롭혔던 소년의 눈을 바라보면서, 미쿨로프는 마음속으로 들려오던 그의 목소리를 생각했다. 신들을 따르지 않고 충동을 따르면 날 절대 구할 수 없을 거야. 그때 미쿨로프는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알 수 있었다.

오히려 가체프의 경고가 날 구한 거야. 미쿨로프는 깨달았다.

비밀의 방 안에 쌓인 시신처럼, 아이들의 영혼 역시 갇혀버린 걸까? 가체프가 구하라고 한 건 그런 뜻이었을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음식을 먹고

심신의 기운을 되찾은 미쿨로프는 적당한 터를 찾기 위해 지면으로 올라갔다. 가체프가 없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왠지 외로웠다.

시신이 워낙 많았기에 장례에 쓸 땀감을 충분히 모을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기 전에 비밀의 방에서 나와 그 백골에 다시 한 번 따스한 햇볕을 받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시신을 안아서 옮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방을 여러 번 오가야 했고, 모두 끝났을 때는 밤이 깊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가체프를 옮기고 그의 시신을 다른 시신 위에 올렸다. 그리고 서두를 이유가 없었기에 쉬면서 밤을 보냈다. 마침내 아침이 왔고, 아이들이 해의 입맞춤을 마지막으로 받은 후에 미쿨로프는 시신 위에 돌 더미를 쌓아 수도원의 망자를 기리는 추모탑을 만들었다. 일을 마치고 나서도 추모의 말을 하지 않았다.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대신 그는 돌아서서 수도원이 있는 쪽으로 절을 하며 옛 친구들, 죽은 형제자매에게 작별을 고했다.

미쿨로프가 천천히, 의기양양하게 하늘 수도원으로 돌아간 것은, 승리를 거두고도 하루 반이 지나서였다. 해는 이미 머리 위를 지나 서쪽 지평선으로 떨어지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가 지나 온 문을 비추고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베데닌을 만났다. 구부정하고 현명한 노 수도사는 불편하다는 듯 계속 자세를 바꾸고 있었다. 마치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던 같은 모습이었지만, 찌푸린 얼굴이 노 수도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만 같았다.

“시험이 끝나고 하루가 넘게 지났구나.” 베데닌이 입을 열었고, 미쿨로프는 그 말에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짐작대로 종양이 사라진 것이 시험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으며, 그때 비밀의 문이 열리고 사부님들도 알게 된 것이었다. 사부님들은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형제들은 지쳤다는군. 그래서 나만 남았다.” 베데닌이 말했다. *물론 그러시겠지.* 미쿨로프가 생각했다. *종양 처리가 서툴렀다며 날 꾸짖을 기회를 놓칠 분이 아니시잖아. 내가 이기고 왔다는 걸 아시면 꽤나 속이 뒤틀리실 테지.*

미쿨로프는 베데닌을 향해 천천히, 소리 없이 걸으며 대답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형제여.” 아흐레나 쓰지 않아서인지 목소리가 잠겨 있었지만, 처음 사용하는 그 호칭이 매우 만족스러웠다. 이제 노인은 베데닌 ‘사부’가 아니라 형제인 것이다. 미쿨로프가 하늘 수도원의 수도사가 될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도 교육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사부들이 신입 수도사들을 몇십 년씩 가르친다는 걸 알았기에, 건방지거나 교만하게 들리지 않으려고 애썼다. 오히려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노 수도사가 감히 대답하지 못할 정도의 의분이 담겨 있었다.

“비밀의 방에는 음식과 물보다 훨씬 많은 것이 있더군요.” 미쿨로프가 이렇게

말하자, 노 수도사의 눈이 조금 커졌다.

“하루 반이나 걸릴 정도더냐?” 노인이 대답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전 화를 냈을

때만큼 당당하지는 않았다.

미쿨로프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노인의 눈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입을 열었다. “그랬지요. 산에는 나무가 거의 없었고 수많은 형제자매를 물어야

했으니까요.”

머릿속에 그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베데닌의 깜짝 놀란 표정을 보니, 그의

얼굴에도 그것이 드러난 모양이었다.

베데닌과 동료 사부들이 미쿨로프가 성공할 거라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숨겨진 시체를 발견한 데는 의표를 찌린 모양이었다.

미쿨로프는 베데닌을 스쳐 지나갔다. 성급하거나 무례한 동작은 아니었지만,

덕분에 노 수도사는 충격에서 깨어났다. “늦었다. 수련을 시작해야지.” 노인이 그의 등

뒤에서 호통을 쳤다. “즉시 공회당으로 가거라.”

미쿨로프는 지친 듯 고개를 저었다. 그 모든 고생이 갑자기 그를 짓누르는 듯했다.

“아직은 아닙니다, 베데닌.” 그가 대답했다. “우선 좀 먹어야겠습니다. 목욕도 좀 하고요.”

노인은 분노로 눈을 가늘게 뜨고는, 애써서 권위 있는 모습을 보이려 했다.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나는 네...” 노인이 머뭇거렸다. “형제지.”

미쿨로프는 어렴풋이 웃음을 지었다. *사부라고 말을 못하니 얼마나 속이 쓰릴까.*

이제 우리가 형제라는 게 얼마나 못마땅할까.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고,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이 나이에 수도사가 된 사람은 거의 없었지.* 갑자기 감사의 마음이 밀려왔다.

“물론 수련을 해야지요. 형제여.” 그는 진정한 겸손과 존경심을 담아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몸에서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더러운 모습으로 신들께 다가가 모욕을 안겨드릴 순 없습니다. 우선 음식을 먹고 목욕을 한 다음에 수련을 하겠습니다.”

이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었다. 무시당하면서 참던 날은 지났다. 노인이 더듬거리며 할 말을 찾는 동안 미쿨로프는 걸어가면서 등 뒤로 말했다. “편히 주무십시오, 형제여.”

미쿨로프는 하늘 수도원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을 짓눌렀던 고독에 대해 곱씹었고, 산에서의 일을 계기로 마침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가족을 만났다는

걸 깨달았다. 물론 계획한 대로는 아니었다. 지금부터는 동료 수도사들을 “형제” 또는 “자매”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미쿨로프의 진짜 가족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의 가장 가까운 혈족은 이 수도원 안이 아니라 등 뒤의 산 꼭대기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